

엠보코플러스(대표 김명환)는 라미네이팅과 동시에 엠보싱 작업을 해 인쇄물을 고급스럽고 보존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는 엠보 라미네이팅 전문기업이다. 과거의 엠보 라미네이팅 작업이 인쇄물에 라미네이팅을 한 후에 각종 무늬가 있는 롤러를 이용해 다시 엠보싱 작업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작업 과정이 생략되어 한층 높아진 생산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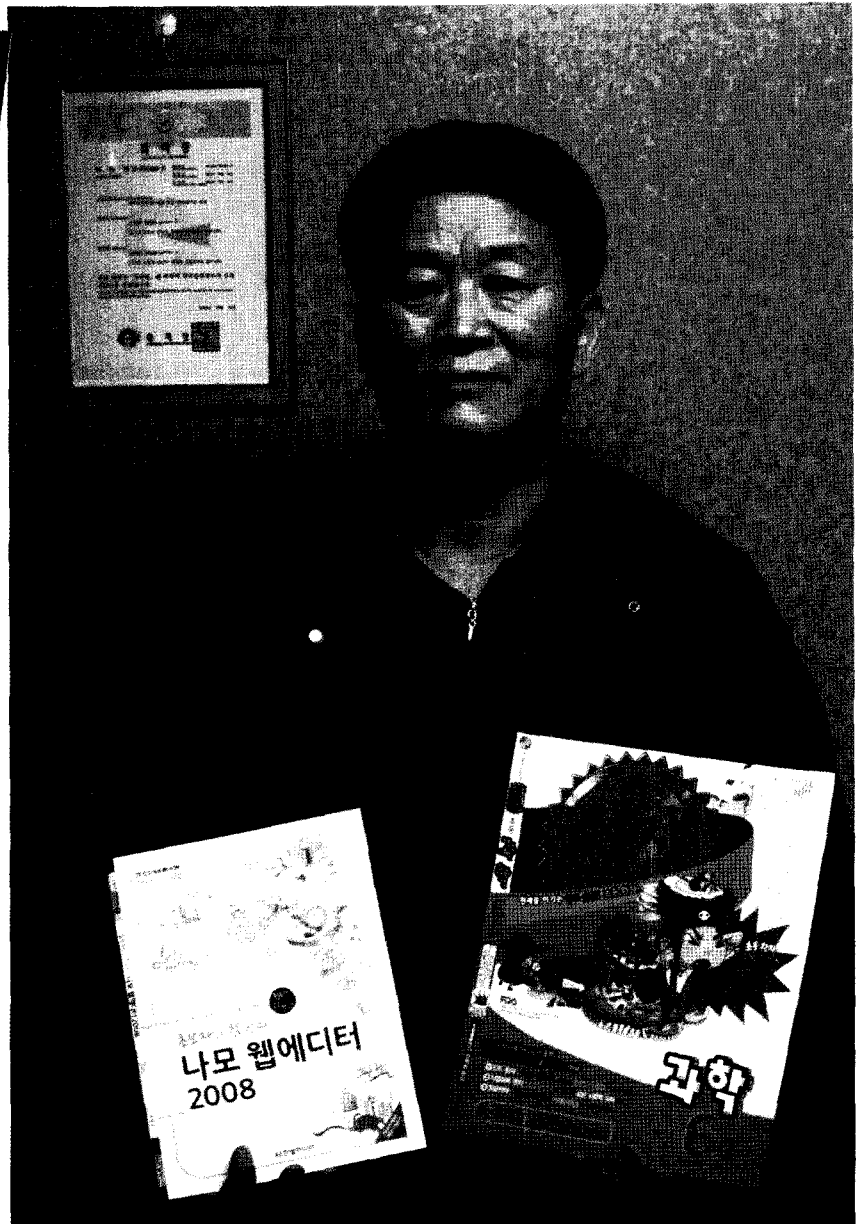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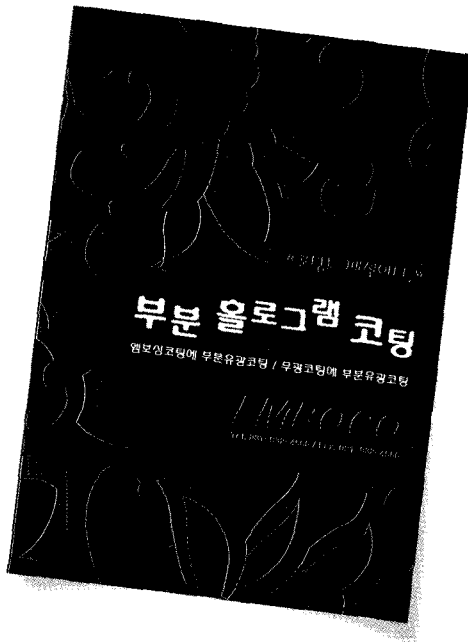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만이 아니다. 기존의 라미네이팅 방법은 압력에 의해 뒷면의 인쇄물에도 무늬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 전면의 고급스러

운 느낌에 비해 뒷면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실제로 기존의 라미네이팅은 접착제가 묻기도 하는 등 작업환경상의 문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작업의 강도가 높아 궁극적으로는 엠보싱작업을 기피, 구인문제까지 발생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라미네이팅 작업을 한 후에 엠보싱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하는 공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온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엠보코플러스는 대안을 마련, 환경오염 등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PVC필름이 아닌 라미네이팅을 바로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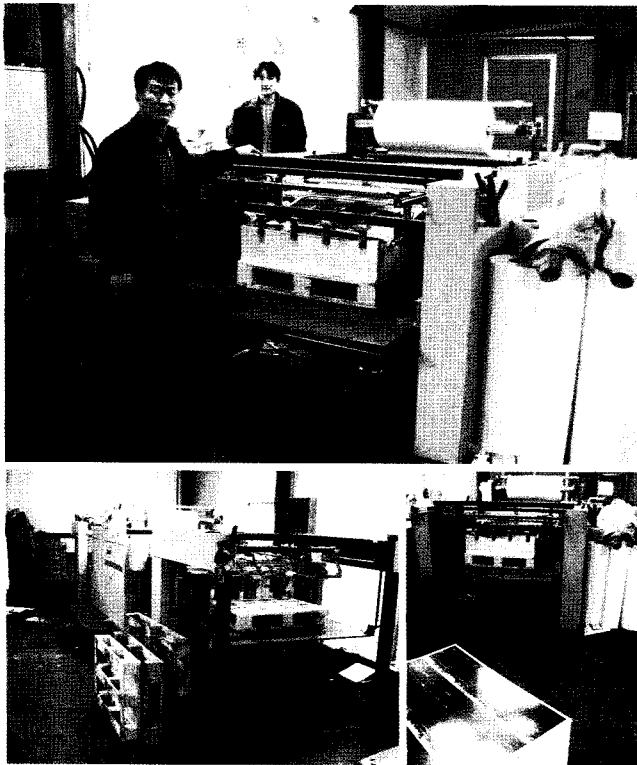
## 엠보코플러스

# 인쇄물 고부가가치는 “엠보싱이 적격”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OPP필름을 이용해 작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엠보 라미네이팅 기계로, 한꺼번에 라미네이팅과 엠보싱 작업을 하고 있다.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한 기계와 필름만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공간의 절약, 작업환경의 청결은 물론 뒷면에 인쇄된 부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쇄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계의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 인력이 아니라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 인력 절감 효과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엠보코플러스를 설립한 직후 김 대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라미네이팅 기계는 엠보 롤러를 110℃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라미네이팅과 엠보싱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 비해 속도가 느려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다. 별도로 작업을 해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계 한 대로 여러 문양을 작업해야 하다 보니 이를 교체하는 시간이 시간 절감의 효과를 덮



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작업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지적을 적지 않게 받기도 했다.

사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이 엠보 라미네이팅 작업은 엠보코플러스 김명한 대표와 기계를 제작한 지엠피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이었지만 고객들이 이런 사정까지 알고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인쇄업과 인연을 맺은 지 40년에 달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김 대표는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간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실패를 해도 인쇄사업을 하다가 했고 재기를 해도 인쇄업으로 한다는 각오였다. 그래서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재기를 모색하다가 지난 2000년에 다시 회사를 설

립, 전사인쇄와 3D인쇄에 새롭게 도전하게 되었다. 김 대표는 삼화인쇄, 광명인쇄, 학원사 등에서 영업을 거쳐 제판회사에 이어 특수인쇄분야를 접하게 되면서 과거에 오프셋인쇄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안목을 다양한 종류의 인쇄로 넓힐 수 있었고 인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생산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1대의 기계로 하나의 문양을 전담해서 작업해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문양의 개발에 집중했다. 그래서 모래무늬, 격자무늬, 줄무늬의 3가지 무늬를 3대의 기계로 전담작업하는 시스템을 완성하면서 최근에는 엠보코팅임에도 민자로 코팅을 할 수 있는 유광코팅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즉, 4대의 기계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중간에 무늬를 교체할 필요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작업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더욱이 무광 코팅시 굵함을 일반 작업에 비해 80%나 줄일 수 있어 인쇄물의 고급화는 물론 하자 없는 인쇄물을 만드는데 기여해 수익성 향상과 자금 순환에도 일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일반코팅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선명성이나 인쇄적성에서 앞선 경쟁력을 가진 무광엠보코팅이 머지않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값비싼 특수지를 사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인쇄업체의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불경기의 여파로 시간과 돈을 들여 힘들게 개발한 엠보코팅 기술이 짝퉁에 의해 시장잠식과 카피제품이 흘러넘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엠보코플러스의 뛰어난 생산성과 품질을 고객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참고서를 주로 만드는 비상교육에 100만부에 달하는 물량이 줄무늬 문양으로 작업되어 납품되었고 이룸E&B에도 격자무늬로 작업된 엠보코팅 표지가 해마다 수십만 부씩 납품되고 있다.

현재 지엠피의 파이오니아8000(2대), 파이오니아11000(1대), 켈린저(듀얼타입)10000을 갖추고 있는 엠보코플러스는 보다 높아진 생산속도와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늬를 사용해 고객사의 인쇄물에 날개를 달아 주는 고부가가치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엠보코는 비록 작은 기업일는지 모르지만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을 통해 자사가 직접 개발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비록 일부 염치없는 업체에서 이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쇄로 시작한 직업을 인쇄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자리가 되도록 이바지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 김 대표는 인쇄업계 후배들에게 이른바 ‘되는 사업’에만 몰려들지 말고 작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에 도전해 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도전하는데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쇄업에만 40년이 넘게 몸담아 온 연륜에서 오는 무게감과 장인정신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